

2006년 여름, 미국 서부의 감자꽃 일기

최연홍
시인

아 들 결혼이 유타주 파크 시티(Park City) 스키산장에 있어서 결혼식을 마치고 나는 하객들과 함께 북쪽의 옐로스톤 국립공원(Yellowstone National Park)과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Grand Teton National Park)을 찾아 나섰다.

유타주는 물론 교도들이 세운 주, 그 주의 수도가 솔트레이크 시티(Salt Lake City). 소금호수의 도시라는 뜻이다. 파크 시티는 솔트레이크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스키 휴양지. 2002년 겨울 올림픽 스키장으로 유명하다. 며느리 될 여자가 선정한 도시로 그녀나 우리 아들과 아무 연고가 없는 도시의 산장이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유타에 세워지기 전, 물론 교도들은 정통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피해 서부 황무지에 당도했다. 그들은 바다같이 큰 호수에 닿아서 여기가 서부의 끝, 태평양 연안이라고 생각하며 정착했다.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다. 염분 농도가 바다 염분보다 훨씬 높은 호수였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정착했다. 지금도 바다갈매기가 날고 있고, 유타주의 새 이름은 캘리포니아 갈매기.

솔트레이크 시티는 깨끗한 도시. 물론 교도들

의 성지답다. 언덕위에 성지다운 교회가 서 있고, 기념관이 서 있고, 음악당이 서 있다. 교회 침탑엔 십자가 대신 금으로 된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다.

물론이 이단이란 근거가 그 천사에 있다. 조셉 스미스 교주가 꿈에 만난 천사의 계시가 이 종교의 시작이었으니까. 가톨릭의 상징은 성모 마리아이고, 개신교의 상징은 십자가이니 종교마다 상징이 다를 수 있고, 십자가의 모양에 따라 러시아정교회와 다른 기독교가 구별된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필요하다. 이단이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종교의 자유다.

황무지를 종교의 힘으로 개척한 몰몬인들에게 남다른 것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7개 중의 하나로 뽑힌 이 도시와 몰몬교를 분리해 생각할 수는 없다. 살기 좋은 도시란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학교, 좋은 환경이 있고, 좋은 사람이 산다는 뜻이다. 거기 4계절이 있고, 봄엔 꽃이 피고, 여름엔 건조한 바람이 불고, 가을엔 단풍이 들고, 겨울엔 스키하기 좋은 최고의 눈이 내린다.

19세기 초엽, 길도 없는 서부로 산맥을 넘고 강을 건너 마차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주해온 100여명의 개척자들이 오늘의 유타를 있게 했으니, 종교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솔트레이크 시티 근처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구

리 광산이 있다. 달나라에서 찍은 지구 사진에 만리장성과 이 구리광산이 나온다니파헤쳐진 광산이 산을 이루고 있다. 지금도 땅 밑으로 파내려가고 있다. 앞으로 300년 더 켈 구리 광산이라니, 신이 황무지에 내린 선물이다. 인간의 문명 발전에 구리만큼 기여한 광물이 있을까.

호수와 광산을 뒤로 하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찾아 나섰다. 유타주를 넘어 북상하니 아이다호주가 나온다. 아이다호주는 미국 최대의 감자 생산지. 거대한 감자밭이 진한 초록색 들판이다. 거기 보랏빛 꽃이 피어 있었다.

감자는 하지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9월, 10월에 추수한다니 놀랍다. 추운 지대에서 나오는 감자는 쪼먹는 감자가 아니라 구워먹는 감자인가 보다.

내 외할머니가 하지감자를 한 소쿠리 캐 머리에 이고 먼 길 오시던 모습, 감자를 쪼 간식으로 주시던 그 모습이 아이다호 감자밭에 아련하다. 사랑의 감자가 여기 가득하다. 눈물이 핑 돈다.

여름에는 길고 우리는 아이다호 웰스(Idaho Falls)라는 도시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아이다호주 가장 큰 도시인 아이다호 웰스는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스네이크 강(Snake River)이 흐르고 인공 폭포를 만들어 수력 발전을 일으킨 도시. 이 도시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니 물이 얼마나 귀한 자연 자원인가.

스네이크 강은 미국의 강, 서부의 강으로 알려진 강이다. 뱀처럼 굽이굽이 대평원과 계곡, 협곡, 폭포를 지나 흐르는 아름다운 강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수량이 많아 관계 사업으로 농사를 짓고 목장을 유지한다. 아름다운 강을 따라 맨 처음 여행한 루이스와 클락(Lewis and Clark's expedition)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명령으로 1804년 험난한 야성의 강을 탐험했

다고 표현해야 하겠다.

그 당시 의회는 2500달러 예산을 배정했다.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국의 서부 탐험이 시작된 것이다.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미조리강을 따라간 탐험은 1805년 11월 오레곤 태평양에서 끝난다. 미조리강, 스네이크강, 콜럼비아강을 따라 그들이 쓴 탐험기가 미국의 서부 지리와 원주민의 삶, 환경 연구의 큰 발자취가 된다.

이튿날 아침, 옐로스톤 국립공원 서쪽 입구가 있는 웨스트 옐로스톤(West Yellowstone)이란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다시 망망한 감자밭과 폭포, 강을 바라보았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와이오밍, 아이다호, 몬타나 접경의 국립공원. 고원의 96퍼센트는 와이오밍 땅이다.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 세계 국립공원의 효시다.

1872년 미국인들은 이미 자연의 보전에 눈 떴다. 경상남도만한 땅을 인간의 문명이 닿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니 칭찬할 만하다. 가보고 싶어도 도시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갈수 없었던 공원에 들어섰을 때 내 감정은 그랜드 캐년에 들어섰을 때의 감정과 같았다. 아마 키 큰 소나무 숲이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그러나 곧 이 공원이 다른 공원과 다른 Geyser(간헐천) 경이로움에 싸이게 된다. 지하수, 온천수가 지상으로 내보내는 수증기와 물, 그리고 지하의 광물질에 따른 다른 빛깔의 물빛, 옥색 물빛, 백색 물빛, 황색 물빛, 형형색색의 물빛과 작고 큰 호수가 만들어 낸 공원은 경이로웠다. 일본에서는 이런 수증기가 나오는 계곡을 '지옥 계곡'이라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아름다운 들판과 계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원의 중부, 북부를 돌아보았다. 북부 맘모스 온천(Mammoth Hot Spring)엔 온천의 지하수가 지상으로 석회암을 끌어내어 단층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신이 만든 조각, 미술품이었다.

웨스트 엘로스톤으로 나와 하룻밤을 자다. 이튿날 아침 엘로스톤 국립공원 엘로스톤 캐년(Yellowstone Canyon)과 거기 있는 두 개의 폭포를 보고 엘로스톤 호수(Yellowstone Lake)를 찾아 분화구라고 믿기 어려운 거대한 호수를 보았다.

눈 녹은 물보다 지하수가 솟아나 만든 거대한 호수, 이 호수가 스네이크강과 미조리강(Missouri River)의 원천이라니 내가 가진 환경 지식이 얼마나 미천한가.

그리고 보니, 몬타나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지하수대가 생각난다. 오킴로(Ogollo)라는 거대한 지하수의 바다. 현대의 사람들은 그 지하수를 과도하게 퍼내어 써서 지하수를 고갈되게 하고 오염시키고 지반을 무너트리고 있다. 주마다 경쟁적으로 지하수를 꺼내 쓰고 있으니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호수가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호수를 4분의1쯤 돌고 공원 남쪽 올드 페이스풀(Old Faithful)이란 곳으로 나왔다. 점심으로 난생 처음 바팔로 고기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었다. 미국 원주민들(인디언)의 주식, 쇠고기보다 부드러운 육질이었다. 백인들이 바팔로를 살육한 이유가 원주민들의 양식을 살육한 이유라고 여긴다. 불쌍한 인디언들의 운명처럼 바팔로도 멸종 위기에 몰린 야생 동물이 되었다. 내가 먹은 바팔로 고기는 목장에서 사육한 것임을 알린다.

올드 페이스풀, 거기엔 엘로스톤 국립공원의 상징인 온천수의 분수가 60분~70분마다 뿜어 오른다. 1000여명의 관객이 모여 있었다. 자연이 만든 분수대는 관객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름을 올드 페이스풀로 붙인 모양이다. 백 번 들어도 한 번 본 것만 같지 않는다는 옛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이나 사진에서 본 온천 분수대를 이제 실감할 수 있다.

오고 가는 길에 시슴과 바팔로(소의 일종)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모두 선한 동물임을 알겠다. 그리고 20년 전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어린 소나무, 자작나무들이 네키만큼 자라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미국과 세계에서 동원된 소방관들이 끌 수 없었던 산불은 10월 첫 눈이 졌다고 알고 있다. 자연 발화에서 시작한 산불은 자연 진화로 끝났고 이제 거기엔 새 생명들의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사람이 식목한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자라고 있었다.

엘로스톤 국립공원의 다른 상징인 꿈을 한마라도 못보고 온 것이 못내 아쉽다.

다시 하룻밤을 웨스트 엘로스톤에서 지내고 새 아침 공원 남쪽으로 난 출구로 나오니 어느새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이 나온다. 6마일 남쪽. 1929년 국립공원이 되었고, 1950년 공원 영토가 오늘의 것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알프스, 스위스에 온 기분이다.

잭슨 호수(Jackson Lake)에 비취진 티톤 산맥 연봉이 볼 만하다. 그 산맥의 정상인 그랜드 티톤인데 불란서어로 '아름다운 여자의 젖꼭지'란 뜻이다.

제니 호수(Jenny Lake)에서 바라본 티톤 정상이 일품이다. 거기 평원을 잭슨 홀(Jackson Hole)이라 부른다. 거기 티톤 마을은 미러 정상 회담도 열렸고, 여름 골프, 겨울 스키가 가능하니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여름철엔 매일 저녁 음악회가 열린다니 하룻밤 묵어 갈만 하다.

스네이크강을 타고 내려오는 뱃목도 보이고 고무 선박도 보이는 국도를 타고 다시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름 해도 졌고, 칠곡 같은 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명한테 거기 큰 별마다 2006년 여름 행복했던 유다, 아이다호, 몬타나, 와이오밍의 여행 추억이 잠들어 있다. ☺